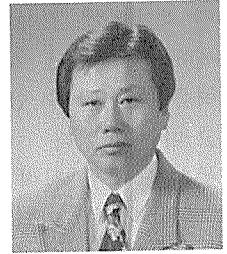


제1차 한·미 컴퓨터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다녀와서



신 영 조
정보산업과 부장대우

1. 한·미 컴퓨터 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요

제1차 한·미 컴퓨터산업 기술협력 포럼이 지난 8월 11일·12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한·미간 컴퓨터 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지난 93년 12월과 '94년 5월, 한·미 통상장관 회담시 합의한 양국 민간분야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협력 자문회의 설치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번 기술협력 포럼은 본회 이상원 상근 부회장을 단장으로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통신, 현대전자, 삼보컴퓨터 등 임원진 15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R.Iverson 전자협회장 IBM, AT&T, TI, EDS 등 미국업체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통신, 컴퓨터 산업현황, 한국의 컴퓨터 통신산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양국의 컴퓨터 통신산업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멀티미디어 분야의 표준화, 미국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현황, 미국 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추진방향, 멀티미디어 표준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수에 관심을 가졌고,

미국측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특허출원 및 심판의 처리기간 단축, 현지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한 Open House 설치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2. 미국 관련업체 현황

미국의 IBM은 현재 미국내 우수기업, 정부 등과 합의하여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업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NII 시스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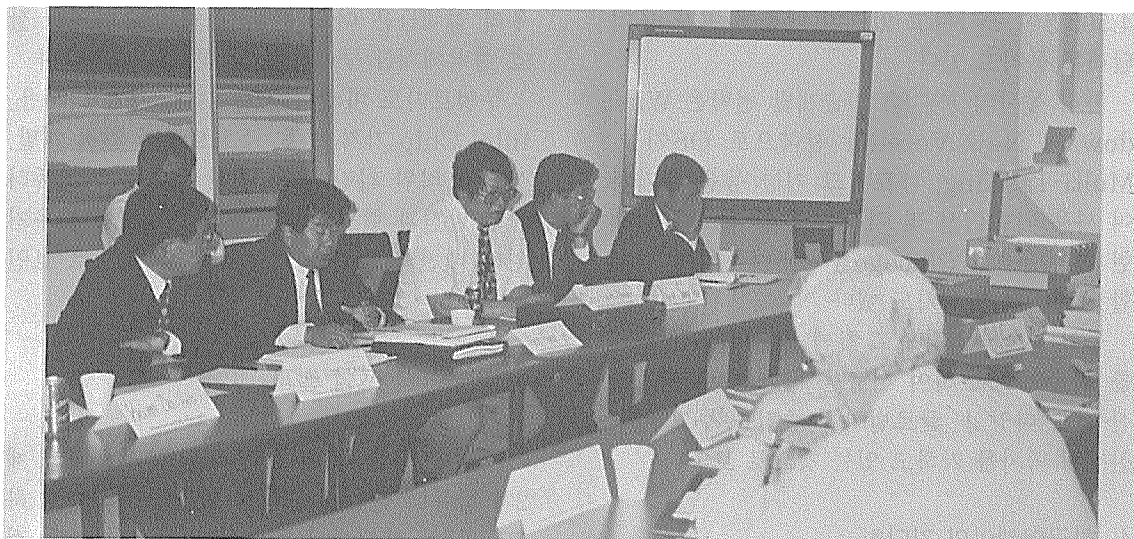
특히 NII 시스템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자발적 참여와 독자적 기술은 보호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체 Network 시스템이 매우 크고 광범위해 공개할 경우 많은 정보유출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국들은 정보제공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에 있어서도 관세 비관세 장벽이 없어야 될것이라고 밝히고 민간 업체에서 주체가 되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업체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등에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AT&T는 미국의 전기통신, 장거리 전화사



업의 독점권 포기 댓가로 통신장비사업 참여 계획과 향후 경쟁관계를 밝혔다.

EDS는 GM의 자회사로 연간 매출액 80억 달러 규모이며 30개국에서 7만 1,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87년 우리나라의 금성사와 합작으로 STM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통신, 에너지, 환경분야가 주요 사업분야이다.

SPA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고 특허출원 및 처리기간 단축에 깊은 관심을 표명 했다.

SPA는 '85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제조업자 협회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ray Research는 전세계 슈퍼 컴퓨터 시장의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의 KIST, 국방과학 연구소 등에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72년도에 설립, 연간 매출액이 93달러에 달하는 업체이다.

Raychem은 '57년에 설립 연간 매출액 13억달러로써 플라스틱, 금속, 화학물의 물리적인 특성을 살린 재료과학 제품(Material Science Products)으로 통신기기, 환경보호, 항공우주, 전기 및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제품들을 생산중이며 세계 85개국에서 거래되고 있다.

3. 산업시찰

Axil은 '91년 9월 현대전자가 100% 투자한 현지 법인으로 고유상품인 Axil 브랜드로 SUN계열의 호환성이 뛰어난 워크스테이션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한국에 50 : 40 : 10의 비율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다.

Tandem사는 '74년도에 설립, 종업원 8500명으로 비교적 역사가 일천하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로 급성장 연간 2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동사가 '93년도에 개발한 히말라야 컴퓨터 시리즈(K-1,000~K-10,000)는 메인 메모리가 32MB~102MB까지 다양하며 User의 용도에 따라 선택폭이 넓고 디스크를 사용할 경우 210GB 확장이 가능하며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나 세계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논 스톱형 컴퓨터로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납품이 확정되었다.

Microsoft사는 '75년에 설립, 종업원 1만

4,5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 연간 46억 달러를 올리고 있다.

특히 동사의 FY 95 기술개발 전략은 Windows의 New Version 전략으로 OS기능, Multi-Tasking, 네트워크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의 용이성 및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개발중인 Chicago를 '95년 3월에 발매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동사의 영업전략으로 첫째, PC의 보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용을 쉽게, 정보획득의 신속성, 다양성, 글로벌화에 중점을 두고 매출 신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업체와의 간담회

현지 진출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Strategic Alliance가 중요하고 Licence 등 기술정보가 신속하게 입수되어야 함을 예로 들고 정보수집과 멀티미디어 분야에 주력해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워크스테이션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Multi Processor Board를 개발 중에 있다고 현대전자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그리고 자가 브랜드 판매가 중요하고 관세 및 로열티 관계로 SKD 방식으로 수입하여 조립생산하고 있으나 Intel Chip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입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했다.

한편 애로사항으로 인력부족을 들었으며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활발한 정보교환과 비공식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크게 낙후돼 있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따라서 기술정보 입수 등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업체들은 더욱 분발, 현지 진출업체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마케팅 능력, 자가 브랜드 사용, Intel Chip 가격 변동, 소프트웨어 인력 개발, 상공부 직원 파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 발전과 현지 진출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기술협력 포럼 결과

이번 포럼을 통해 '95년 5월중 서울에서 제2차 컴퓨터 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키로 하고, 제1차 포럼에서 합의사항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교류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을 1차적으로 10~20명을 선발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컴퓨터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컴퓨터 산업 분야에서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컴퓨터 통신산업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위해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 했으며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조치가 전자산업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현지 구매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으며 실리콘 벨리에 있는 한국업체 관계자와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현지 활동의 애로사항과 현지에 진출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의 활동상황을 살펴 보았다.